

열린무대35 극단 열린무대 10주년 기념공연 · 4

# 해파리섬

지상에서 고통을 느끼는 자들의 세기말적 증후군

하현관의  
'월요마임무대'가  
새롭게 준비됩니다.



홈페이지

[www.openplay.co.kr](http://www.openplay.co.kr)



## 연 · 출 · 의 · 변

- 박 지 산

연극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다.  
이것이 연극에 대한 나의 기본 정신이다.

인터넷 바다에서 〈해파리 섬〉 희곡을 구하고 기뻐다. 나의 현재 상태와 고민이 모여있기 때문이었다.  
세기말의 증후군, 밀레니엄의 홍수, 새 천년에 대한 희망 등이 사회적 환경의 화두이기에...  
창단 단원인 최웅 선배를 다시 모셨다. 그리고 신입단원들이 결합하였다. 여름 한 날, 감포 앞 바다를 배경으로 결단식을 가졌다. 평일은 저녁시간, 주말은 합숙연습으로 두 달간 연습에 몰두하였다.  
단원들과 인물의 성격을 잡느라 소주잔이 오고가고, 행동선이 그어졌다. 서울에 있는 작가 서지원씨랑 E-mail과 전화로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밤새워 장치가 세워지고 조명이 밝혀졌다. 음악이 선곡되고 의상을 제작하느라 분주히 미싱을 돌린다. 온통 〈해파리 섬〉에 대한 고민으로 해파리가 되었다.

이제 공연이다.

나의 가족이 갈기갈기 찢기고, 마치 도마 위에 맨살을 올려놓는 듯한 느낌이다. 나의 연극정신과 〈해파리 섬〉에 대한 함수관계를 아직 풀지 못한 것 같다.

이 공연을 위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 작 · 가 · 이 · 야 · 기

- 서 지 원

이 연극이 이 설화를 패러디한 이유는 불교 사상을 전파하려는 것도 아니고, 민족 정신을 되살리자는 의도도 아니다. 2000년을 앞 둔 지금, 1000여 년 전의 인간이 갖고 있던 유토피아에 대한 사상과 현대인이 갖고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사상을 적나라하게 들춰보고자 한다. 인간의 의지로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까지 현대인을 몰아넣음으로써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와 제도와 절망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란, '삶'이란, 그리고 '사랑'이란 어떤 양태로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한다.

삼국 유사 속에서는 광덕이 주인공, 엄장이 보조인물 정도로만 표현되는데, 나는 이 극 속에서 모자라고, 단순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엄장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했다. 엄장의 고통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극본을 쓰면서 삼국 유사와 이 극의 연결 고리를 패러디로 보이지 않게끔 의도적으로 끊어 놓으려고 노력했다. 그 이유는, 삼국 유사에 나오는 설화와 이 극을 각각 독립적인 작품으로 봄으로 1,000여 년 전 인간들의 정토(유토피아)와 현대인의 이데아를 보다 확연하게 비교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나는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인물을 우리의 현실 속에 재구성하여 그들을 통해 현실과 죽음을 벗어난 현대인들의 이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지고자 한다.

- '작가노트' 중에서





나 . 오 . 는 . 사 . 람 . 들

엄장  
최웅



광덕  
배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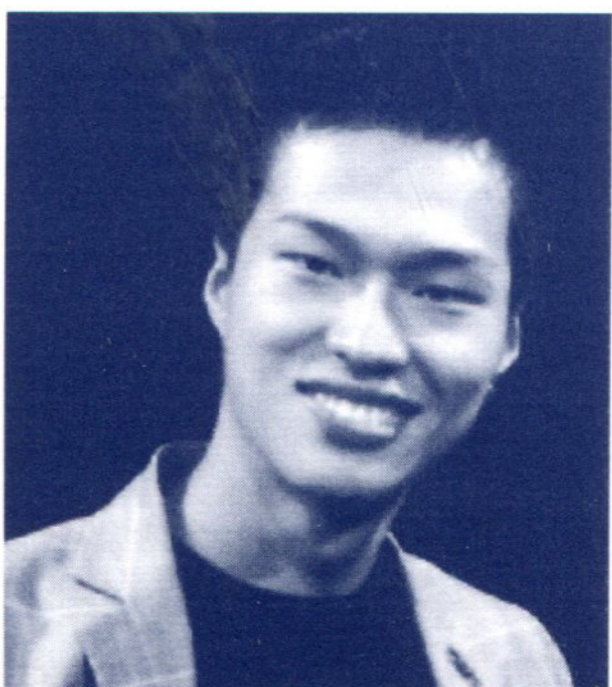
광덕  
엄지선

코러스1  
김수진



코러스2  
노미경

코러스3  
이종형



코러스4  
이경연







만 · 드 · 는 · 사 · 람 ·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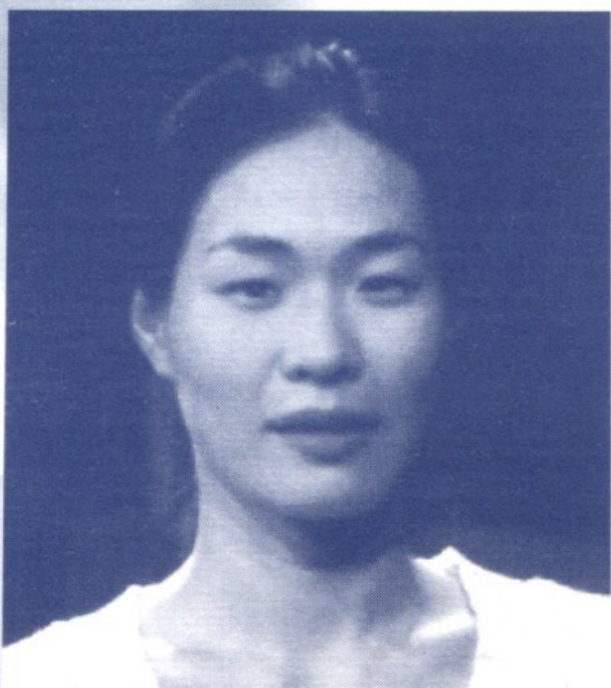
조연출  
정상미



무대감독  
구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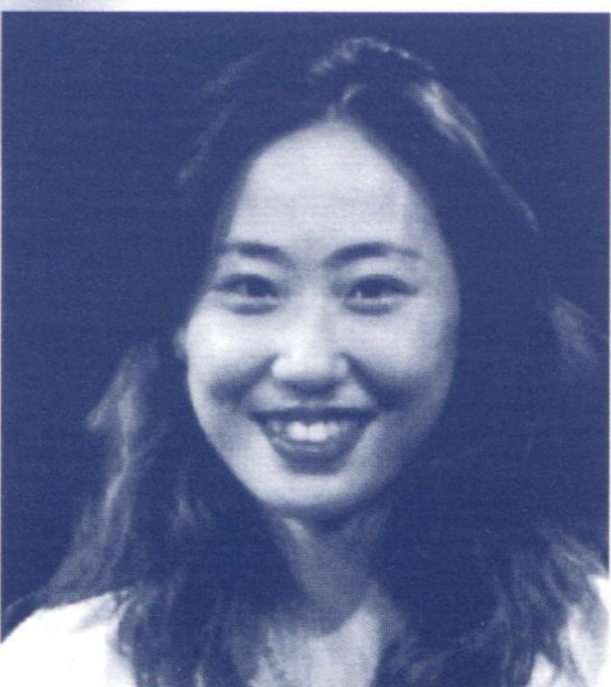
무대장치·조명  
서석현



무대미술  
박필영



음향  
정화선



의상  
박민진

소품  
김수진, 염지선

제작·기획  
열린무대 기획실